이초잔 신사

이초잔 신사의 역사는 서기 658 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나나쿠라산(해발고도 287m) 산기슭에 서 있는 이 작은 신사는 장군 아베노 히라후(575~664 년)가 혼슈 북부와 홋카이도의 선주민인 에미시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며 건립한 신사입니다.

신사는 1350 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데, 특히 신사 경내에서 3 세기 넘게 자란 은행나무가 유명합니다. 이 은행나무는 '은행나무 산'을 뜻하는 신사의 이름의 유래이기도 합니다. 은행나무는 잎과 가지에 수분이 매우 많아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신사와 사원 주위에 심겨 있습니다. 이 은행나무들은 화재 시 천연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.

신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높이 28m 의 '유주 은행나무'는 나무 몇 그루가 밀집되어 자란 것입니다.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 모유가 나오지 않는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이 전설은 에도시대(1603~1867 년)에 번주인 사타케 가문의 부인이 소원을 종이에 적어 이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.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사는 사타케 가문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.

신사 왼쪽에 난 길을 따라 더 가면 '연리 은행나무'라고 불리는 비슷한 높이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. 연리라는 말에는 '친밀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'라는 뜻도 있어 두 그루의 나무는 부부를 나타내며 부부 조화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.

로맨틱한 **파트너**를 찾고 있는 사람은 숨을 죽이고 나무 줄기 사이의 아치를 지나 8 자를 그리며 나무 주위를 3 바퀴 도는 것을 추천합니다. **그렇게 하면**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.